왜곡하고 싶은 역사 (II) - 다말의 변장

(마1:1~3)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왜곡하고 싶은 역사 두 번째로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 사는데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과부복을 벗어 버리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술이 취해 회포를 풀려는 시아버지를 창녀인 것처럼 가장하고 유혹하여서 침실로 끌어 들이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동기로도 이 며느리의 계획적인 이 패륜아적 행위가 어떻게 변명되고 변호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나쁜 것은 유다의 문제입니다마는 도대체 다말은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운 다말의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베레스라는 아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서의 족보로 영입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말의 삶을 추측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자료가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릇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집을 갔어요. 이방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야곱이라고 하는 증조할아버지가 가계를 장악하고 있는 집안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집에 그 유다의 첫째 아들에게 맏며느리로 시집을 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처럼 명절 때마다, 때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안의 온 형제가 모이면 꼭 반복해서 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집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집안은 명절 때나 이럴 때 되서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모이게 되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말도 그런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며느리들이 들으면서 그 집을 이해하게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제 자신도 듣기 싫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한 번 공개해 볼까요?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충사에 이 순신 장군의 기념에 관한 모든 물건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신 장군 옆에 서 있는 장군이 쓰시던 긴 칼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칼을 보면 칼자루가 없어요.
자루가 없이 그 큰 자루를 꽂는 부분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 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슨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이냐? 하면 태씨로 시작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저희 집사람은 한 삼십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직업에 대한 철학이 분명치 않은 어린 나이에 아주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이 순신 장군이 이 순신이 아니라 태 순신이라면 얘깃거리가 되지만 그 이 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을 태씨가 만들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 같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끔 겨울에 동태 잡아다가 목 끊고 몸 동아리 딱딱 끊어 가지고 애 꺼내고 이래 갖고 동태찌개도 끓여먹고 그러잖아요. 동태를 얼리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명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태가 왜 명태 된 줄 아십니까? 함경도 명천 이라는 곳에 사는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새로 잡았어요. 처음 보는 고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먹고 임금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고기를 먹고 "이 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잡힌 고기라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누가 잡았느냐?" "명천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지 어부가 잡아서" "아! 그래 그러면 명태라고 하여라." 이렇게 해서 명태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나 드세요. 여러분! 명태 드실 때 마다 태 목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그리 큰 자랑 거리가 아니지요.

어쨌든 족보 얘기가 반복 되는 가운데 다말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문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나름대로 자기 안에 받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며느리로서의 삶이 시작 되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시동생이 자기의 침실에 들어 와서 동침을 하다가 시동생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시아버지 유다가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막내아들을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뒤에 며느리를 친정에 내 보냅니다.
내 보낼 필요가 없었지요. 기다리게 하면 되는 거지요. 자기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쫓아 냅니다. 이유는? 그 당시 미신적인 풍습 상 잠자리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불길한 여자라고 하는 미신이 풍습처럼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 다말을 생각해서 쫓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아버지가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복을 벗고 막내 시동생이 다 장성했음에도 자기한테 주지 않음을 인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창녀 복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다말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방 여자로서 재혼하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옛날 이조시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젊은 나이에 더 늙기 전에 결혼을 새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조시대 여인에게처럼 수절을 요구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 다말이 배우고 자란 것도 그렇게 수절을 하도록 배우고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더더군다나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유스럽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늙으신 시아버지 유다가 특별한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시아버지와의 로맨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계략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에요.
이 일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맨스도 없고, 매력에 매료된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약속한대로 세 째 시동생을 주시옵소서. 하면 될 텐데 그런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도 안했어요.
아마 다말 스스로가 불길하게 마가 낀 여자라고 하는 세상의 풍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실을 극복할 만큼의 지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남자를 죽이는 여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세 째 동생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 얘기도 못했어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 할 때 다말은 즐거워서 한 게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자로서 창녀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다말은 이미 죽었습니다.
화형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마는 여자로서의 일생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그 순간에 이미 불 타 죽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교인 중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어머니의 딸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딸이 불행하게도 여대생인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때때로 구토를 합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도 구토를 해요.

당했던 추악한 일이 경험 되면서 심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구토로 나타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려 생각 했을 때 구토가 나는 일이었던 것임이 틀림없어요.
시아버지가 더럽거나,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일 자체가 여자에게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구토가 나는 것이 참으로 오늘 본문은 여자의 심정이 되기 전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해해 보면, 정말 역겨운 일인 것을 마음으로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수행해 나갔을 때 다말은 여자로서의 나머지여생 전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계획대로 아기를 갖게 되면 아들인지 시동생인지도 모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평생을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자처합니다.

다말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여자로서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여자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 하나 정황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말이 원했던 것은 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에 일환으로 남고 싶었던 것 하나뿐입니다.
여자로서의 일생 다 버리고, 남편의 가능성 버리고, 단란한 가정의 가능성 버리고, 떳떳한 자식 가능성 다 버리고, 여자가 이 아브라함 집에 남아 있으려면 아기를 가져야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붙잡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입에서 입으로 오가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선택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 남아 있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구토 나는 일을 계획하고 여자로서의 가능성을 불살라 버린 채, 시아버지를 유혹 했던 것이에요.

유다는 직감적으로 며느리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 차렸습니다.
그래서 화형 장에서 며느리에게 이야기 한 것이에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로 산다는 것에 중요성을 모르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 다말, 이방인 사회에서 자기 집으로 시집온 이 아가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아 있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토가 날 수도 있을 일을 계획하고 자기를 유혹하여 아기를 갖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됨의 가치를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들으면서 자란 나도 다 잊어 버렸던 것을 어떻게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좋아서 유혹하지 않았음이 분명할진대 여자의 일생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이 가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 돌릴 수 있는 옳은 자다. 나보다 옳도다.” 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앞에 해 주면서 시아버지는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다말은 인생 전체를 자기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말에게서 낳은 아기를 통해 담겨지게 되는 족보에 끼어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모든 유다의 형제들이, 시아버지 대의 형제들이, 시댁 식구들이, 믿음이라고는 없이 살면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얘기 할 때 그냥 건성으로 듣고 불신앙적으로 살던 그 시아버지 대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말은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만큼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 봐도 믿어지지 않고, 유다도 놀랬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의아할 정도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 가계에 남기 위하여 아기를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지요? 가정? 사업?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자식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나머지여생 전체에 여성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계에 남기 위하여 구토 나는 일을 감행하며 아기를 갖게 된 다말의 마음이야 말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

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모든 것을 다 합쳐 저울에 달아도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파란색 돌을 주면 아이들이 그 돌을 갖고 굴리면서 장난을 하고 놉니다.
백인들이 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껌 하나씩 주면서 돌을 다 받아 갔어요. 껌 하나씩 주면서,
그 돌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금광을 백인들에게 다 뺏기고, 다이아몬드 광을 다 뺏기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뒤늦게 알아 가지고 내전을 통해서 서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앗겠다고 서로 죽이고 난리예요.

예수! 예수!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의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껌 하나 주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뺏어 가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가치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가치만 인정 되면 야 팔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가치가 마음에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다말은 그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운동 중에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운동을 아십니까?
조그맣게 원을 그려 놓고 저도 몸집이 좋습니다마는 뭐 200키로, 250키로 막 이렇게 되는 사람, 도저히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그 좁은 원에 들어가서 주먹을 쥐지 않고 손바닥을 편 채로 상대방을 먼저 원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둘이서 와~ 살이 그냥 막 그 사람들이 걸을 여 면은 배를 이렇게 받쳐줘야 걸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는 싸움을 하는데 필사적으로 이 원안에 머물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인생은 스모예요. 스모!

예수님의 품으로부터 끝없이 우리를 몰아내려는 사탄과 우리가 싸우는 스모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껌과 같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이 열 개가 있다면, 열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만 뺏겨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 한 짝이 안 들어가는 바구니에 사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안 들어가는 바구니에 사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담으려면 전체가 비워져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권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하지 않는 한, 의식하지 않는 한, 목적하지 않는 한,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 할 때 마음에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하시는 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예수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말 같은 그런 믿음을 누가 갖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쉽게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쉽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찢기신 살을, 마음으로 한 움큼 갖고 와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문질러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피를 묻히고 내 마음에 발라 봅니다. 당신의 고통 한 점을 떼어다가 내 마음에 묻혀 봅니다.”
이상해요.
그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 한 움큼을 잡고 내 마음에 발라 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내 마음에 발라 봅니다.
자녀로부터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경제 문제 나를 옥조이고 있어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 그대로 놓아 둔 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묻혀 봅니다.

예수님 피 내 마음에 발라 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옥조이던 마음이 갑자기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 되면서 예수님 한 분과 일대 일로 직면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담겨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NBA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 사람을 연구 해 본 적이 있어요.
또 우연치 않게 그 사람과 동시에 징기스칸을 똑같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두 사람의 생애가 아주 뚜렷하게 대별되는 게 있더라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은 어릴 때부터 용기와 이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책략이 뛰어나서 임금이 되면서 동쪽을 서쪽을 좌우로 사방으로 바라봅니다.
몽고 사람들이 시력이 4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막에서 살아 가지고 시력이 4예요. 4,
그 잘 보이는 눈으로 광활한 사막을 향해 웅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몽고의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몽고족을 이끌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진을 해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동 유럽 전체까지 파고 들어가 점령을 해 버리고 동쪽으로도 한 없이, 한 없이 제국을 넓힙니다.

이 사람의 생애와 매직 존슨의 생애를 비교해 봐요.
뒷골목 흑인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뒷골목에 있는 농구 골대에서 아스팔트길에서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합니다.
이 흑인 아이의 꿈은 징기스칸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25미터 세로 15미터 넓이의 코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NBA 리그전 코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넓게, 넓게 확장해 갑니다.
매직 존슨은 어렸을 적부터 그 좁은 코트를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영입 되겠다는 마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코트 안에서 2미터 6짜리 키 장신의 거인 같은 사람이 그 좁은 코트에서 온갖 마술 같은 묘기를 속출합니다.
이 때 기자들이 부친 이름이 매직이에요. 원래 어빈이었거든요, 어빈, 어빈 존슨이었는데 매직 존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대부분 징기스칸 유형이에요.
확장하려 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늘리려 합니다.
갖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 합니다.
거꾸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좁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직 존슨처럼 좁은 땅 덩어리로 들어가겠다고 일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다말은 다 버립니다. 다 버려! 다 버리고 앞을 봐도 예수라는 라인, 옆을 봐도 예수라는 라인, 뒤를 봐도 예수라는 라인으로 딱 갇혀 버린 코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 해서 다 버리고 혈혈단신 남은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로 예수로 둘러 싸여 있는 코트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점령합니다.
매직 존슨이 25미터 길이의 코트에 들어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징기스칸과는 다르게 온 세계 농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열광케 했던 것처럼 다말은 다 버리고 좁게, 좁게 축소해서 마음의 관심을 예수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 품에서 노는 동안에 인생의 마술사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족보 안에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요?
자식과 관계, 배우자의 관계, 가정의 관계, 직장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많은 삶의 국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국면들을 다 언제 관할하시고 어떻게 확장해 가시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앞에 계시는 집사님들? 제일 행복했던 기간?
결혼 안 한 미성년자는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결혼이었다면 신혼여행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혼여행이 달콤하고 행복하면 영어로 신혼여행을 뭐라고 그러지요?
‘허니문’ 발음도 좋으세요. 얼마나 달면 허니문이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 신혼여행이 단지 아십니까? 왜 그 순간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리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 할 때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기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하나의 일에 미쳐 버렸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일이 마음이 갈립니다.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식에게 아버지도 되어 주어야 되고, 아내에게 남편도 되어 주어야 됩니다.
마음이 갈리면서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졌던, 이유가 되었던 부인이 잔소리꾼으로 변하고, 바가지꾼으로 변하고, 부담으로 변하고, 왜 저런 여자와 결혼 했느냐 후회꺼리로 변하게 되요. 왜?
갈려지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갈려지면서…

쉽게 사세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 못하고 마음이 갈려 나가면 어느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허니문 기간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다 마음에서 빼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걸어보세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 안에서 농구 코트 안에 들어가려는 매직 존슨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품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현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말처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좁은 품으로 들어가도록 넓고 넓은 관심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품에 집중하여 안겨서 이 세상을 다말이 받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